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A Study on Local Publication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김 치 우(Chi-Woo Kim)**

목 차

- | | |
|--------------------------|-------------------|
| 1. 序 論 | 3. 1 書名別 傳存本 |
| 2. 冊板目錄의 編纂 分析 | 3. 2 冊板目錄別 傳存本 現況 |
| 2. 1 『攷事撮要』 冊板目錄 | 4. 傳存本の 書誌的 分析 |
| 2. 2 『嶺南冊板記』 | 4. 1 開板事項 |
| 2. 3 『東京雜記』 書籍條 | 4. 1. 1 開板地 |
| 2. 4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別의 刊本 比較 | 4. 1. 2 開板時期 |
| 3. 冊板目錄 所載의 傳存本 考證 | 5. 結 論 |

초 록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の 傳存本을 조사하고, 고증하여 제반 書誌事項을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은 『攷事撮要』 冊板目錄에 989종과 『嶺南冊板記』에서 중복되지 않는 25종을 합하면 모두 1014종이다. 이중 221종은 『嶺南冊板記』, 57종은 『東京雜記』 書籍條 冊板目錄의 收錄 刊本과 각각 중복된다. 그러므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은 이것을 합하면 모두 1292종이다.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에 所載된 傳存本은 『攷事撮要』 八道程途 冊板目錄의 117종이다. 이중 33종은 『嶺南冊板記』, 10종은 『東京雜記』 書籍條의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과 각각 중복된다. 그러므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の 傳存本은 이것을 합하면 모두 160종이 된다.

이 傳存本의 현황을 지방별로 살펴보면 江原道 5個 地方 10種, 慶尙道 17個 地方 55種, 全羅道 10個 地方 33種, 忠清道 4個 地方 4種, 平安道 2個 地方 9種, 咸慶道 1個 地方 1種, 黃海道 3個 地方 3종이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these is aiming at making an investigation on the existing local publications which were including woodblock catalogs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and analysing the bibliographical matters.

The overall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publications contained in the woodblock catalogs are composed of 1292 titles. With the exclusion of 278 titles duplicated in Yŏngnamch'aekp'an-gi(221 titles) and Tong-gyŏngjapki(57 titles), there are one thousand fourteen titles in the woodblock catalogs in Kosach'waryo(989 titles) and Yŏngnamch'aekp'an-gi(25 titles).

Secondly, publications which are included in woodblock catalog and being handed down to the present are composed of 160 titles. Excepting 43 titles which are duplicated in the woodblock catalogs containing Yŏngnamch'aekp'an-gi(33 titles) and Tong-gyŏngjapki(10 titles), there exist 117 titles.

Thirdly, looking at the publications handed down to the present on the basis of location, 10 titles were published in five areas in Kangwŏn-do, 45 titles in 17 regions in Kyŏnsang-do, 33 titles in 10 areas in Chŏlla-do, 4 titles in 4 different areas in Ch'ungch'ŏng-do, 9 titles in two different areas in P'yŏngan-do, 1 titles in one area in Hamgyŏng-do, the other titles in three regions in Hwanghae-do.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Local Publication in the Early Chosŏn Dynasty)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경성대학교 인문학부(문헌정보학전공) 교수
접수일자 1999년 10월 22일

1. 序論

朝鮮朝 前期에는 書籍이 적지 않게 간행된 듯 하나 災難과 兵亂등으로 인하여 散逸되고 燒盡되어 傳來되는 圖書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한 현상은 당시 地方版 典籍일수록 심하다.

그래서 당시의 書誌學이나 國學 研究는 대체로 자료 접근이 용이한 中央에서 發刊된 자료에 依存하는 傾向이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書誌學 分野를 보면 상당수가 京師에서 發刊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史學, 哲學, 語文學 등 제 분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해당 학문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다 地方刊本の 부족과 확인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朝鮮朝 前期의 冊板目錄에 所載된 당시의 傳存本을 밝히고, 고증하여 관련 분야 사람에게 활용토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당시 冊板目錄으로는 『攷事撮要』 冊板目錄이 있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으로 『嶺南冊板記』와 『東京雜記』 書籍條가 있다.

이 세 가지 冊板目錄은 刊記가 없거나 文獻上에 나타나지만 未傳되는 상당수의 朝鮮朝 前期 刊本에 대하여 간행 與否를 알 수 있으므로 그 활용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刊記가 분명한 刊本일지라도 이 冊板目錄에 收錄 與否를 확인하고, 書誌의 特性을 밝힌다면 이들 冊板目錄 자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세 가지 冊板目錄의 特性을 분석 검토하여 보고 아울러 그곳에

所載된 傳存本을 찾고, 考證하여 그 活用に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2. 冊板目錄의 編纂 分析

朝鮮朝 前期 각 지방에서 開板된 冊板은 상당수가 官撰의 문헌에 收錄되어 있지 않고, 冊板目錄에 收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地方刊本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冊板目錄을 찾지 않을 수 없다. 冊板目錄은 당시의 지방에서 開板된 冊板을 다른 어느 문헌보다 많이 收錄하고 있어서 전적의 開板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당시 冊板目錄의 편찬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1 『攷事撮要』 冊板目錄

『攷事撮要』는 明宗 9年(1554) 魚叔權이 편찬한 유서로 朝鮮時代에 있어서 官吏나 在野의 선비에게 아주 긴요한 日常의 내용이 收錄되어 있다. 그래서 英祖 7年(1771) 徐命膺이 그 내용을 대폭 改訂增補하여 『攷事新書』로 개편하기 以前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루어졌다. 그 중 冊板目錄은 壬亂 以前에 간행된 宣祖 1年 乙亥字本, 同王 9年 乙亥字本, 同王 9年 翻刻本, 同王 18年 木板本 등 4종의 現傳 『攷事撮要』에 모두 收錄되어 있으며, 內容 및 體裁에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다.

2.1.1 冊板의 增減

傳存本에는 비록 刊記가 없더라도 『攷事撮

『要』에 冊板目録에 의해서 刊年 推定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으므로 그 冊板의 증가 추세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

여기에 收録된 冊板目録은 原撰者 또는 續撰者가 직접 조사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동일한 刊本인데도 어떤 것은 完全書名, 또 어떤 것은 簡略書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雪菴書帖』을 永川, 寧海, 全州 및 平壤에서는 『兵衛森』, 知禮에서는 『雪菴兵衛森』, 羅州, 臨陂, 三陟 및 晉州에서는 『雪菴書』 그리고 慶州에서는 『雪菴書體』라고 하여 여러 가지 書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書名이다. 書帖은 대개 일정한 書名이 없으므로 사람에게 따라 부르는 題名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을 1인이 조사하였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書名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冊板目録은 原撰者 또는 續撰者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撰者가 官職上 官路를 이용하여 조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보고 採記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刊本이 未傳되고 또 簡略書名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이 많아서 동일 刊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區分者에 따라서 冊板數나 冊板名의 區分이 달라진다. 또 중앙에서 開板된 刊本은 제반기록에 의하여 실물이 未傳되더라도 대체로 書名만은 알 수 있으나 지방에서 간행된 도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冊板의 數와 增減 冊板數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刊本이 未傳되는 것은 부득이 語句와 前後 冊板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여 증감된 冊板數는 선조 1년

乙亥字本에 557종, 同王 9년 乙亥字本에 558종, 同王 9년 翻刻本에 559종, 同王 18년 木板本에 989종이다. 同王 9년 翻刻本에서는 2종이 추가되었으나 1종이 감소되어 同王 9년 乙亥字本보다 數字上으로는 증가된 것은 1종이며, 이것은 그후 다시 同王 18년 木板本에서 再收録된다.

宣祖 18年 木板本에서 再收録된 1種의 冊板까지 합하면 430種이나 된다. 이것은 宣祖 9년 이후에 새로 開板한 冊板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 諸板 冊板目録에서 빠진 것을 아울러 收録하였기 때문이다. 冊板은 開板되면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오래 동안 전래된다. 뿐만 아니라 冊板은 材料上으로도 대략 2세기 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冊板目録 作成 당시에는 조사가 미흡하여 收録되지 못하였으나 후에 조사되어 收録되는 예가 대단히 많은 것이다. 증가 추세로 보더라도 宣祖 1년 이후 8년 후에 편찬된 宣祖 9년 乙亥字本에서 1종, 그리고 同王 9년 翻刻本에서 1종이 없는 반면 2종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1종이 추가되었는데, 宣祖 18년 木板本에서 새로 開板된 冊板이 430종이나 새로 開板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冊板目録에는 이처럼 많은 冊板이 收録되어 있어서 朝鮮朝 前期 刊本으로 散逸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데나 현존하는 고서로 刊行地 및 刊行年을 究明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冊板目録에는 당시 開板된 상당수의 冊板이 빠져있다. 그 주된 이유는 『故事撮要』가 官撰書이므로 모든 내용들이 국시인 崇儒政策에 입각해서 편찬되었으므로 冊板目録에서도 寺刹板本이라든가 國是와 관련이 없는 저술들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많기 때

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寺刹本이다. 朝鮮朝 前期 佛書를 開板한 사찰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개 정도이고, 총 目錄數는 530餘種이다.¹⁾ 그런데 본 冊板目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林川의 寶光寺와 瑞興의 歸眞寺에서 각각 2종과 3종 모두 5종뿐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국시와 관련이 없는 저술들은 除外시켰다.

그 외에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빠진 冊板이 것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당시 調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누락된 傳存本으로 현재 확인된 것의 總 目錄數는 240여종이 넘는다.²⁾

이와 같이 冊板目錄에는 收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朝鮮朝 전기 刊本の 전체 目錄數만 하여도 770餘種이 넘는다. 이처럼 많은 刊本들이 본 冊板目錄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冊板目錄에 收錄되지 않는 刊本은 이 程度는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요한 지방의 官撰書나 儒學 關聯 人士들의 저술은 상당수가 收錄되어 있으므로 이 冊板目錄은 書誌學的인 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冊板들은 壬亂으로 말미암아 많이 燒毀湮沒되어 光海君 4年 訓練都監字本인 朴希賢 改修本부터는 이를 全部 刪削하고 토산으로 대치되었다. 그것은 跋文에 “至於八道 冊本 今則 失故 皆刪去 以土產代之”³⁾라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2 『嶺南冊板記』

『嶺南冊板記』는 개별적으로 전래되는 판본

은 없고 『古冊板所在攷』의 慶尙道 冊板目錄에 轉載되어 전해오고 있다. 『古冊板所在攷』에 收錄된 京畿, 忠淸, 全羅, 江原, 黃海, 咸境 6道の 冊板目錄은 肅宗時에 편찬된 『海東地誌』 卷1-35에서 轉載하고, 慶尙道 冊板目錄은 壬亂 以前에 편찬된 『嶺南冊板記』에서 轉載한 것이다. 『古冊板所在攷』는 李聖儀가 편집한 油印本으로 『古冊板有處攷』라고 하였으나, 그후 『古冊板所在攷』라고 改題되었다. 『韓國의 冊板目錄』⁴⁾ 下卷에는 前者의 題名으로, 『古書目錄集成』⁵⁾에는 後者の 題名으로 그 冊板目錄을 소개하고 있다.

『海東地誌』는 6.25때 없어져서 그 전모를 알 수 없으며, 다만 일제시대 宋錫夏의 考證記錄에 의해서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肅宗時代에 편찬된 地誌로 英正祖時代에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필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收錄된 경상도 冊板目錄은 朝鮮朝 前期의 冊板目錄이고, 그 외 6도의 冊板目錄은 대개 壬亂 以後부터 肅宗 以前까지의 冊板目錄으로 朝鮮朝 前期 刊本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2. 1 作成時期

『嶺南冊板記』는 朝鮮朝 前期 慶尙道 地方의 冊板 236種이 收錄되어 있어서 당시 慶尙道의 冊板目錄을 조사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書目이다. 慶尙道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많은 冊板을 開板하였으며,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서 오래 동안 많이 전래되었다. 그래서 『攷事撮要』의 慶尙道 冊板目錄과 비교 검토하여 보는 것은 당시 冊板의 開板事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필요하다. 이

『嶺南冊板記』는 宋錫夏가 假稱한 것이며, 黃義敦의 소장본이었다.

지금까지 대체로 이 書目的 작성시기는 두 가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明宗 9年 以前이고, 다른 하나는 宣祖 1年 以後인 것이다. 前者의 이유는 이 冊板記에 收錄된 236종 중 25종은 본 書目에만 있는 것으로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하여 明宗 9年 初印本 『攷事撮要』 冊板目録에서는 제외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 諸板 『攷事撮要』에도 빠져있다. 그래서 『嶺南冊板記』가 『攷事撮要』 冊板目録보다 먼저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後者의 이유는 『嶺南冊板記』에 收錄되어 있는 181종이 宣祖 1年 乙亥字本 『攷事撮要』에 收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嶺南冊板記』는 이 乙亥字本 『攷事撮要』를 보고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書目은 宣祖 1年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宣祖 9年 翻刻本の 密陽條 冊板中에 所載된 『唐鑑』이 『嶺南冊板記』에 다시 收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唐鑑』은 海州의 『詩大文』과 함께 宣祖 9年 翻刻本에서 추가된 2개 冊板 중의 하나이다. 本書는 『東萊先生音註唐鑑』의 略稱書名이며, 弘治 10年(1497)에 중국에서 도입되어 中宗 6年(1511)에 王命으로 인출된 후⁶⁾ 자주 간행되었으며, 密陽의 『唐鑑』도 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것이 『嶺南冊板記』에 收錄되었다는 것은 그 書目 作成時에 宣祖 9年 翻刻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嶺南冊板記』는 宣祖 9年 이후에 작성된 것이 거의 분명한 것 같다.

이 『嶺南冊板記』의 全體 326種 冊板은 지방별로 開板 實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慶州 51種, 安東 20種, 尙州 11種, 晉州 31種, 星州 17種, 金海 2種, 昌原 3種, 密陽 15種, 善山 10種, 河東 2種, 大丘 4種, 榮基 4種, 永川 10種, 草溪 3種, 咸安 3種, 豐基 3種, 昆陽 8種, 醴泉 6種, 陝川 8種, 宜寧 1種, 淸道 6種, 咸陽 5種, 知禮 2種, 固城 3種, 義城 9種이다.

이와 같이 『嶺南冊板記』가 비록 慶尙道 지방의 冊板目録인만큼 宣祖 9年 翻刻本 『攷事撮要』에 비하면 25종이나 더 조사되어 收錄되어 있다. 물론 同王 18年 木板本 『攷事撮要』에 비하면 收錄된 冊板目録이 많이 적지만 그것은 나중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2. 3 『東京雜記』 書籍條

『東京雜記』 書籍條의 慶州府藏 冊板에는 『攷事撮要』 慶州 冊板目録에 나타난 대부분의 書名이 收錄되어 있으며, 그 외의 조선 전기 冊板도 收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 金致雨, 1998, 王亂以前 地方刊本の 開板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6輯: 47. 이 530餘種은 宣祖 18年 木板本 『攷事撮要』에는 收錄되어 있지 않다.

2) 朝鮮朝 前期의 傳存本은 890餘種으로 이 중 120여종은 宣祖 18年 木板本 『攷事撮要』 冊板目録에 收錄되어 있고, 770餘種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중 530여종이 사찰본이고, 240여종이 기타 전적이다.

3) 魚叔權, 1612, 『攷事撮要』 朴希賢 改修, 庚子字體訓練都監字本 卷末.

4) 鄭亨愚, 尹炳泰 共編, 1995, 『韓國의 冊板目録』 上下, 補遺·索引 (서울: 保景文化社).

5) 東國大學校 圖書館, 1962, 『古書目録集成』 油印本 (서울: 同圖書館).

6) 『唐鑑』 重刊唐鑑序. 成均館大學校 所藏.

本書는 撰者未詳으로 전해 오던 『東京誌』를 顯宗 10년(1669)에 당시 慶州府使 閔周冕이 增修하여 『東京雜記』로 간행한 것을⁷⁾ 肅宗 37년(1711)에 南至勳이 다시 중간했으며⁸⁾, 또 憲宗 11년(1845)에 成原默이 다시 訂正하여 간행하였다.⁹⁾

2. 3. 1 慶州 冊板目錄

이 慶州 冊板目錄은 卷3 書籍條에 收錄되어 있으며, 府藏冊板, 鄉校所藏板, 西岳書院所藏板, 淨惠寺所藏板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장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冊板의 傳來 사실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이 書目에는 역시 書名만 기재되어 있고 일체의 書誌事項은 없다. 그 書名도 대개 簡略書名을 사용하고 있다. 이 書籍條에는 모두 92종의 冊板이 收錄되어 있는데 그중 35종은 새로 추가된 것이고, 57종은 朝鮮朝 前期 冊板으로 宣祖 18년 木板本 『攷事撮要』 冊板目錄과 『嶺南冊板記』에도 所載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중 일부의 책판은 宣祖 9年 翻刻本 以前의 諸板 『攷事撮要』에도 각각 收錄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 추가된 冊板을 所藏處別로 구분하면 府 23種, 鄉校 1種, 西岳書院 3種, 淨惠寺 8種이다. 이것은 대체로 壬亂 이후 冊板으로 보고 있으나 좀 더 구명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冊板은 새로 開板된 것인지 아니면 前期 冊板中에서 빠뜨린 것인지 傳存本이 없어서 알 수가 없으나 내용의 성격상 전기 刊本과 유사하지만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 冊板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92종의 冊板中 府藏 冊板 49종 전부와 淨惠寺 所藏板 8종 모두 57종은 이미 『攷事撮

要』에 收錄되어 있는 것이다.

2. 4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別의 刊本 比較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에 所載된 冊板數는 1014種이다.

이중 211種은 『嶺南冊板記』, 57種은 『東京雜記』와 각각 중복된다. 그러므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은 이것을 합하면 1282種이 된다.

3. 冊板目錄 所載의 傳存本 考證

3. 1 書名別 傳存本

朝鮮朝 前期의 傳存本으로 冊板目錄에 所載된 刊本과 刊地가 일치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刊本으로 보아도 오류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같은 내용의 刊本을 중복적으로 開板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미 朝鮮朝 전기에는 冊板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制度的인 對策을 마련하였다. 그 때는 人的 物的 資源의 빈곤으로 일단 한 번 開板된 刊本은 거듭 開板되는 일이 잘 없으므로 刊年이 宣祖 18年(1585) 以前이고 刊地와 書名이 冊板目錄에 나타나 있다면 그것과 일치하는 도서로 보아도 오류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朝鮮朝 前期에는 冊板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措置를 마련하였으니 世宗 7年(1461)에는 各道各官所在의 冊板에 대한 傳掌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으며,¹⁰⁾ 同王 10年(1464)에는 冊板藏置之 법을 정하게 하고¹¹⁾ 또 成宗 2年(1471)에는 諸

道 刊行의 書冊板子를 竝錄會計하여 新舊官이 傳掌하게 하였던 것이다.¹²⁾ 뿐만 아니라 世宗 14년(1468)에는 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書冊은 啓聞後에 開板하도록 하여 他道와의 중복을 피하고 不緊한 書는 간행치 못하게 하였다.¹³⁾ 中宗 2년(1507)에는 前咸陽郡守 崔連孫이 在職時에 『黃山谷集』을 燒棄했다는 이유로 罷職推考된 일이 있다.¹⁴⁾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冊板을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官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같은 지방에서 동일한 내용의 冊板을 두 번 이상 開板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도서로써 刊地가 본 冊板目錄에 나타나 있는 것과 동일하고 刊年이 宣祖 18년 이전의 것이면 상당수 전적은 冊板目錄에 收錄되어 있는 도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傳存本中 89종은 실물로 확인하고 나머지 28종은 文獻에 의해서 확인하였다. 그 28종 중에서 18종은 『淸芬室書目』에서, 4종은 『朝鮮醫書誌』에서, 3종은 『朝鮮王朝實錄』에서, 2종은 『跋文』에서, 1종은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각각 확인하였다.

3. 2 冊板目錄別 傳存本 現況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에 所載된 傳存本은 前記한 刊本을 合하면 총 117종이 확인되었다. 이중 83종은 宣祖 1年 乙亥字本에, 34종은 同王 18年 木板本에 각각 收錄되어 있는 것이다.

이 117종에서 33종은 『嶺南冊板記』와 그리고 10종은 『東京雜記』 書籍條와 각각 중복된다. 그러므로 冊板目錄에 所載된 傳存本은 이 중복되는 것과 합하면 모두 160종이 된다.

4. 傳存本の 書誌的 分析

4. 1 開板事項

冊板目錄에 收錄된 冊板만 가지고는 당시 刊本の 書誌的 特長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書名과 開板地 정도이다. 사실 書名도 略式書名을 사용한 것이 많아서 正式書名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傳存本을 확인하여 밝힐 수밖에 없다. 특히 冊板의 開板方法이나 開板處 및 開板年 등

7) 閔周冕, 1669, 『東京雜記』(慶州) 卷末.

8) 閔周冕, 1771, 『東京雜記』(慶州) 序 : 辛卯(1771)南至薰.

9) 閔周冕, 1845, 『東京雜記』(慶州) 序 : 乙巳(1845)府尹成原默.

10) 『世宗實錄』卷29, 7年乙巳 9月 丁酉條 “九月丁酉朔 吏曹啓請 各道各官所在冊板守令於新舊交代解由 開寫某冊幾板 明白傳掌 其等內 破毀遺失板子 依數充補傳掌 以爲恒式”

11) 『世宗實錄』卷39, 10年戊申 正月 己酉條 “禮曹啓 江原道監司報 四書大全 已分三處刊板 各 樓閣 主題藏置 無使亂秩 如或 缺 隨即改刊 守令交代之時 明載解由 在前冊板 亦依此例 其藏書閣營造 聽 自願僧徒 功訖 賞職 請依所報 諭他道 依此施行從之”

12) 『成宗實錄』卷9, 2年辛卯 正月 丁亥條 “傳于禮曹曰 諸道刊行書冊板子 守令不用意典守 以致散失 自今并錄會計 新舊官傳掌”

13) 『世宗實錄』卷57, 14年壬子 8月 己丑條 “傳旨禮曹 擅刊書冊 或刊他道已刊之書 或刊不緊之書 徒費財力 實爲未便 自今必令啓聞刊行”

14) 『中宗實錄』卷3, 2年丁卯 10月 丁酉條 “丁酉憲府啓曰 奉常寺正崔連孫 前任咸陽郡守時 其子妻母家在郡內 本貧窮 結草屋而居 連孫赴任六年之內 大構瓦家 穀食充溢 且黃山谷集板本在郡 儒林 爭乞印出 連孫 惡其煩擾

도 마찬가지로 傳存本을 통하지 않고는 冊板目録에 收録된 刊本の 開板事項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조사된 傳存本도 冊板目録을 통하지 않고는 書誌的 특징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확인된 刊本은 그 種數가 冊板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당시의 刊本이나 開板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朝鮮朝 前期 開板事項을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冊板目録에 收録된 冊板과 傳存本을 相互 補完的으로 분석 검토하여 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傳存本の 書誌的 分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1. 1 開板地

冊板目録에 收録된 刊本の 開板地는 8個道 119個地이고 傳存本에 의하여 확인된 開板地는 7개도 40개지이다. 이 40개의 開板地는 당시 확인된 전체 開板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數字이다. 朝鮮朝 前期 刊本을 開板한 지방은 대략 175개지로 조사되었다.¹⁵⁾ 그러므로 冊板目録에도 상당수의 開板地가 빠져있으며 아울러 刊本도 빠져있는 것이다.

물론 刊本이나 文獻을 더 조사하면 다른 開板地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러하다. 이처럼 많은 지방에서 刊本을 開板하였으나 冊板目録에 收録된 刊本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적은 편이다.

八道程途上에 나타나는 당시 지명은 329개지이다. 그러므로 175개의 開板地는 이 數字의 약 2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數字이다. 당시 이처럼 많은 지방에서 刊本을 開板하였으

나 冊板目録에 收録된 冊板地는 119개지이고 전래되는 刊本の 開板地는 40개지에 불과하다. 전래되는 간지미상의 刊本 중에는 冊板目録에 나타난 開板地에서 간행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4. 1. 2 開板時期

傳存本을 王의 時代別로 살펴보면 定宗 2種, 太宗 7種, 世宗 16種, 端宗 4種, 世祖 2種, 成宗 18種, 燕山 1種, 中宗 23種, 明宗 21種, 宣祖 23種이다. 開板年이 “朝鮮初期”로 되어 있는 晋州의 『神應經』은 初期에 國基를 마련한 王인 太宗時代に 포함시키고, “明宗-中宗年間”으로 되어 있는 大丘의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는 나중의 王인 明宗時代に 포함시켰다. 그리고 淸州의 『伊川擊壤集』은 宣祖 1년 乙亥字本 『攷事撮要』에 收録되어 있으므로 明宗時代に 포함시켰다.

위에서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시대가 늦을수록 收録 확인된 刊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世宗이나 成宗과 같이 학문을 숭상하는 王은 시대가 앞서더라도 인출된 刊本이 많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冊板目録에 收録된 刊本도 학문을 좋아하던 임금이나 나중의 임금 시대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冊板目録에 소재된 傳存本の 시대성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開板의 上限年과 下限年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간년 추정에 의의의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1. 2. 1 上限時期

冊板目録에 收録된 傳存本으로 開板年이 가

장 오래된 것과 늦은 것을 알아보는 것은 다른 刊本の 開板年을 추정하는 데나 冊板目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最古의 傳存本에 대하여 開板年을 究明하는 것은 다른 書誌事項의 특성을 아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中에서 開板年이 가장 오래된 것은 定宗 2年(1400)에 開板한 錦山の 『柳巷集』과 全州의 『釋尊儀式』이다.

『柳巷集』은 跋文에 의해서 定宗 2년에 開板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同王 2년에 간행된 『釋尊儀式』은 權近의 『陽村集』 卷22 “新刊釋尊儀式跋”에 의해서 당시에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刊本이 가장 오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定宗 2년 이전에 간행된 책으로 開板地와 開板年이 분명한 것을 조사하여 당시 冊板目錄에 收錄되어 있는지 없는지 대조하여보는 것이 가장 용이할 것이다. 만일 조사하여 있다면 그것의 上限時期는 더 올라갈 것이나, 없다면 일단 錦山の 『柳巷集』이나 『釋尊儀式』을 最古의 刊本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朝鮮 定宗 2년 이전에 지방에서 간행된 刊本으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錦山の 『柳巷集』이나 全州的 『釋尊儀式』을 최고의 傳存本으로 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宣祖1년 乙亥字本 『攷事撮要』에서 “剗” 또는 “以上剗”이라고 된 冊板은 初印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初印本이 편찬되던 明宗 9년 당시에 이미 했다면 상당히 오래된 冊板임은 확실하나 定宗 2년 이전에 開板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그러나 문헌과 傳存의 諸刊本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하면 그 상한시기는 더 소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個別 刊本上으로는 『柳巷集』이나 『釋尊儀式』이 最古의 傳存本으로 인정되지만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에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그 이전 刊本の 殘板에 의하면 最古의 開板시기는 太祖시까지 올라간다. 中宗 7년 慶州에서 開板된 『三國史記』에는 太祖 3년에 開板된 『三國史記』의 殘板이 약간 삽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中宗時의 『三國史記』는 당시의 刊本을 翻刻하고, 일부는 새로 써서 새기고, 극히 일부는 太祖시의 殘板을 그대로 사용하였다.¹⁵⁾ 中宗時의 『三國遺事』도 太祖시의 殘板을 사용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傳存本에 삽입된 그 以前 本の 殘板을 고려하면 刊本の 上限時期는 太祖時까지 遡及됨을 알 수 있다.

4. 1. 2. 2 下限時期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中 開板年이 제일 늦은 것은 宣祖 18년에 開板된 全州的 『詞訟類聚』, 羅州的 『退陶先生自省錄』, 大丘의 『睡軒先生詩集』 등 3種이다. 이 刊本은 모두 宣祖

15) 金致雨, 1998, 壬亂以前 地方刊本の 開板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5집: 38-60. 傳來本과 冊板目錄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

16) 中宗 7年 『三國史記』의 目次 一部는 高麗의 殘板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년에 開板되어 그해에 편찬된 木板本 『攷事撮要』에 收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당해에 開板되어 그해에 작성되는 冊板目錄에 收錄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退陶先生自省錄』은 刊記에 의하면 그해 겨울에 開板되었다. 그 刊記에 “萬曆十三年乙酉(1585)冬 羅州牧開刊”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宣祖 18년 木板本 『攷事撮要』는 역시 그해 겨울, 즉 年末에 開板됨과 동시에 收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刊本에 따라서 開板과 거의 동시에 冊板目錄에 收錄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刊本이 開板되고 나서 冊板目錄에 收錄되는 期間이 제일 짧은 것이다.

5. 結 論

朝鮮朝 前期의 冊板目錄에 所載된 刊本の 傳存本을 調査하고, 考證하여 諸般 書誌事項을 分析 檢討하여 보았다. 당시의 冊板目錄으로는 『攷事撮要』 冊板目錄, 『嶺南冊板記』, 『東京雜記』 書籍條 등 3종이 있다.

前記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은 宣祖 18年 木板本 『攷事撮要』 冊板目錄의 989種과 『嶺南冊板記』의 중복되지 않는 25種을 합하면 모두 1014種이다. 이중 221種은 『嶺南冊板記』, 57種은 『東京雜記』 書籍條의 刊本과 각각 重複된다. 그러므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은 이것을 합하면 모두 1292種이다.

朝鮮朝 前期 冊板目錄에 所載된 傳存本은 모두 『攷事撮要』 冊板目錄의 117種 中에 포함

된다. 이중 33種은 『嶺南冊板記』, 10種은 『東京雜記』 書籍條에 收錄된 刊本과 각각 重複된다. 그러므로 당시 冊板目錄에 收錄된 刊本の 傳存本은 이것을 합하면 모두 160種이 된다.

傳存本 中 開板年이 가장 오래된 것은 定宗 2年(1400) 錦山에서 開板된 『柳巷集』과 全州에서 開板된 『釋尊儀式』이다. 『柳巷集』은 跋文에 의해서 開板年을 알 수 있고, 『釋尊儀式』은 權近의 『陽村集』 卷22 新刊釋尊儀式跋에 의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傳存本에 插入된 그 以前 冊板으로 開板時期를 본다면 太祖 3年(1394)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이다. 여기에는 太祖 3年에 開板된 冊板이 混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宣祖 1年(1568) 乙亥字本 『攷事撮要』 冊板目錄에 收錄되어 있으며, 여기에 收錄된 冊板은 明宗 9年(1554) 初印本 『攷事撮要』 冊板目錄에도 收錄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傳存本 中에서 開板年이 제일 늦은 것은 宣祖 18年에 開板된 全州的 『詞訟類聚』, 羅州的 『退陶先生自省錄』, 그리고 大丘[邱]의 『睡軒先生詩集』 등 3種이다. 이 刊本은 모두 宣祖 18年에 開板되어 그해에 편찬된 木板本 『攷事撮要』 冊板目錄에 收錄되어 있으므로 收錄되는 期間이 제일 짧은 것이다.

이 傳存本을 現況을 地方別로 살펴보면 江原道 5個 地方 10種, 慶尙道 17個 地方 55種, 全羅道 10個 地方 33種, 忠淸道 4個 地方 4種, 平安道 2個 地方 9種, 咸鏡道 1個 地方 1種, 黃海道 3個 地方 3種이다.

이것에 의해서 當時 學問的 教育的 實情을 充分히 살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金斗鍾. 1997.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究堂.
- 金允植. 1992. 『世宗朝의 圖書 編撰 및 刊行에 관한 研究』. 文學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문헌정보학과.
- 金致雨. 1972. 『攷事撮要의 書誌的 研究』. 圖書館學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 金致雨. 1998. 壬亂以前 地方刊本の 開板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6輯: 35-62.
- 金致雨. 1983.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釜山 : 民族文化.
- 三木榮. 1973. 『朝鮮醫書誌』 增修版. 大阪 : 學術圖書刊行會.
- 安美璟. 1998. 『朝鮮時代 千字文 刊印本 研究』. 文學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 李仁榮. 1942.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について. 『東洋學報』, 第30卷 第2號: 163-188.
- 鄭媛澤. 1972. 『高麗木板本の 研究』. 圖書館學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 趙婷化. 1986. 『朝鮮朝의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圖書館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 趙婷化. 1996.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研究』. 文學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 千惠鳳. 1991. 朝鮮前記 佛書板本. 『季刊書誌學』, 第5號: 3-43.
- 千惠鳳. 1972. 足利學教의 韓國古典에 대하여. 『書誌學』 第2號: 31-45.
- 千惠鳳. 1972. 귀중본해제: 攷事撮要. 『도서관』 Vol. 27 No. 8: 63-66.
- 千惠鳳. 1989. 『國寶』, 12 『書藝·典籍』. 서울 : 藝耕産業社.
- 千惠鳳. 1991. 『韓國書誌學研究』. 서울 :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刊行會.